

로스쿨 교육과정도 종전의 공방전이나 시비 가리기의 학습에서 탈피하여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충족시키는 분쟁해결의 학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학 로스쿨의 MOU 체결은 산학 연대처럼 좋은 모습의 발전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 법조계의 대선배로서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관들은 개업 초기 많은 사건을 의뢰받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선별 수임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성공률 통계가 전관예우의 증거로 치부되어 전관예우의 인식이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일부 전관들이 변호사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전관예우의 오해를 가중시킵니다. 이 부분은 전관들이 크게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전관들이 전관예우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함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전관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년까지 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후에는 전관예우의 논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증 등의 업무영역을 제공하는 사법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장 중인 조정센터의 조정도 당초 기획대로 전관들의 업무분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년 후에 현재와 같은 조정센터의 상근제도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므로 비상근 근무도 가능하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각 분야의 전관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활동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 5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 온 소회와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이 되어 평생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조생활을 소신대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33년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저의 과오로 고통을 당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과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지성무식(至誠無息)(편집자 주 : 끊임없고 지극한 정성, 즉, 씬 없이 정성을 다하자)이 명언임을 실감합니다. 법조생활의 소회는 결국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느 사회건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건전한 지성인 집단이 있어야 그 사회의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금전만능주의로 인해 천민자본주의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돈을 지배하는 상류집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돈이 먹이사슬의 정상에 있는 형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라는 지식인 집단이 지(知), 인(仁), 용(勇)의 덕목을 갖추고, ‘군자는 의(義)에 밝고 이(利)에 밝은 자는 소인(小人)’이라는 올바른 자세로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법조인들이 돈에 종속되지 않고 지, 인, 용의 품격을 지키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멋있는 지성인 집단이 되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 박진규 (홍보팀) • 사진제공 | 뉴스토마토

위원동정

COMMISSIONERS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정탁 위원(서울제6중재부,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남 여수 디오션 호텔&리조트에서 ‘소통(疏通): 매체를 넘어 인간으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은 2012년 10월 한국언론학회 제3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5백여 명의 언론학자와 전현직 언론인 그리고 대학원생 등이 참석하여 모두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기자간담회 개최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은 5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딤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

했다. 장 위원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7회 딤프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며, 딤프는 6월 15일(토)부터 7월 8일(월)까지 대구시내 주요 공연장 및 대구 전역에서 진행된다.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강연



홍숙영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5월 14일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강연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열린 ‘여우비@홍대’ 토크콘서트 강연

에서 ‘진정성이 담긴 나만의 스토리가 곧 스펙이 된다’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며 강연을 진행했으며, 성공비결은 ‘하고 싶다’가 아닌 ‘하는 중이다’에 있다고 강조했다.